

KIA 정성훈 최다출장 신기록 '카운트다운'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는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평년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겨진 24일 토요일 막을 올린다.

대기록 잔치를 벌인 2017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프로야구 역시 다양한 대기록이 팬들을 기다린다.

지난해 KBO리그는 양현종(KIA)이 역대 최초 3관왕(KBO MVP, 한국 시리즈 MVP, 투수 골든글러브)을 달성했고, 이제는 전설로 남은 이승엽이 통산 최다 득점·루타·2루타 등 마지막 시즌까지 신기록 행진을 벌였다.

올해는 양준혁이 보유한 최다 경기 출장(2,135경기)과 최다 안타(2,318개)가 새 주인을 찾는 게 유력하다.

천정 KIA 타이거즈로 돌아와 유니

폼을 갈아입고 프로생활을 이어가게 된 정성훈은 지난 시즌까지 2,135경기에 출전해 양준혁의 최다 경기 출장 타이기록을 세웠다.

단 1경기만 출전해도 신기록을 세우는 정성훈은 역대 3번째 2,200안타와 400 2루타까지 노린다.

박용택(LG)은 양준혁의 통산 최다 안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225안타인 박용택은 안타 94개를 추가하면 KBO리그 최다 안타

통산 2,135경기... 양준혁 갖고 있는 기록 '-1' 역대 3번째 2,200안타·400 2루타 달성도 노려 북귀 박병호 3년 연속 50홈런과 300루타 도전

신기록 달성 선수가 된다.

2002년 데뷔 후 2008년만 제외하고 15차례에 걸쳐 시즌 100안타 이상을 기록한 박용택은 올해도 100안타를 넘기면 역대 9번째 10년 연속 100안타가 된다.

이와 동시에 7년 연속 150안타 기록도 기대할 만하다.

박병호(넥센)의 북귀로 불리게 된 홈런왕 경쟁도 관심을 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홈런왕을

지켰던 박병호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도전을 마치고 올해 KBO리그에 복귀했다.

박병호가 떠난 뒤, 2년 연속 홈런왕은 최정(SK)이 차지했다.

KBO리그 대표 거포 박병호와 최정 모두 역대 최초로 3년 연속 40홈런에 도전한다.

특히 박병호는 3년 연속 50홈런과 3년 연속 300루타도 넘는다.

'꾸준함의 대명사' 좌완 장원준(두

산)은 역대 첫 11년 연속 세 자릿수 탈삼진과 통산 2번째 9년 연속 10승, 12년 연속 100이닝 투구를 준비한다.

10년 연속 세 자릿수 탈삼진과 10승 종전 기록은 이강철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 시즌 37세이브로 세이브 타이틀을 거머쥔 손승락(롯데)은 역대 2번째 9년 연속 10세이브와 7년 연속 20세이브에 도전한다.

이 부문 현재 기록은 구대성이 한화 시절인 2007년 달성한 9년 연속 10세이브와 7년 연속 20세이브다.

올해 KBO리그에서는 통산 3만 홈런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 홈런 기록은 2만9,301개다.

1만 호 홈런과 2만 호 홈런은 1999년과 2009년 각각 펠릭스 호세(롯데)와 연경훈(한화)의 방망이에서 나왔다. /연합뉴스



U-23 대표팀 첫 소집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우승에 도전하는 U-23 대표팀이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첫 소집훈련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있다. U-23 대표팀은 오는 26일까지 파주NFC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스포츠클럽 연계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체육회가 주말 청소년들의 스포츠레저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체육회는 청소년들의 체력 보강과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를 4월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는 주말스포츠강사들이 지정된 학교 또는 기타 체육시설에 찾아가 평균 2시간씩 종목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안팎 스포츠 프로그램 사업이다.

학교 안 프로그램은 시체육회와 시교육청이 선정한 학교에 스포츠강사를 파견해 각 학교별 희망하는 1개 종목을 수업하는 방식이다. 학교 밖 프로그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선정해 각 구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지역 스포츠클럽과 연계해 광주시체육회관, 남부대국제수영장, 동림다목적체육관 등 공공(민간)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진행되는 학교 안팎 프로그램은 총 240개(학교안 153개, 학교밖 87개)다.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는 학생들이 수영, 축구, 탁구, 배드민턴, 플로어볼, 방수댄스 등 다양한 종목을 매 주말마다 즐길 수 있어서 운동으로 휴일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스포츠강사들의 지도능력 강화와 주말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노린다.

참여 희망자는 대한체육회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인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홈페이지(<http://sat.sportal.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학교 안 프로그램은 담당교사가 학생들을 모집 후 직접 신청하면 되고, 학교 밖 프로그램은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26일부터 사흘간 학생 개인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진흥팀(062-604-19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청주직지킵 출전 선수단 보강 오늘 부산시설공단과 첫 경기

국내 성인 핸드볼 최강팀을 가리는 2018 청주 직지킵대회가 19일 충북 청주 국민생활관에서 개막했다.

12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남녀부 각 9개 팀씩 총 18개 팀이 출전해 남녀 각 2개 조별리그를 벌인 뒤 4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린다. 남자부는 실업 4개 팀과 대학 1개 팀이 참가한다. 국내 대회에서 실업과 대학이 맞대결을 벌이는 것은 2011년 에스케이(SK)코리아컵 대회 이후 7년 만이다.

핸드볼코리아리그는 지난해까지 연초에 개막해 여름에 막을 내렸으나 올해부터 개최 시기를 겨울철로 변경했다. 이에 비시즌기간인 3월부터 직지킵 대회가 열리게 됐다.

새 사령탑 서지열 감독을 비롯해 코칭스태프를 재구성한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도 이번 대회에 참가, 20일 오후 7시 부산시설공단과 첫 경기를 갖는다. 광주도시공사는 에스케이 슈가글라이더즈·부산시설공단·대구시청과 B조에 편성됐다. A조에서는 서울시청·삼척시청·인천시청·경남개발공사·한국체대가 경쟁을 벌인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운영을 맡은 서지열 감독은 "지난 동계강화훈련을 통해 기초체력을 끌어올리고 전술면에서는 수비강화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여제의 귀환' 박인비 파운더스컵 제패

19언더파 269타...LPGA 통산 19번째 우승

'골프 여제' 박인비(30)가 1년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박인비는 19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와일드 파이어 골프클럽(파72·6,679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기록,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로 우승했다.

지난해 3월 HSBC 챔피언스 이후 1년 만에 LPGA 투어 대회를 제패한 박인비는 투어 통산 19승을 기록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22만 5,000달러(약 2억 4,000만원)다.

박인비는 지난해 8월 브리티시 오픈을 끝으로 허리 부상 때문에 LPGA 투어 대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10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B금융스타 챔피언십과 11월 이벤트 대회인 ING생명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출전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지난 3월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 월드 챔피언십으로 이번 시즌을 시작한 박인비는 올해 두 번째 대회에서 첫 우승을 신고했다.

3라운드까지 1타 차 선두였던 박인비는 1번 홀(파4) 버디로 최종 라운드를 상회하게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11번 홀까지 10개 홀 연



박인비가 19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와일드파이어 골프클럽에서 끝난 LPGA투어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시상식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AFP=연합뉴스

속 파 행진을 벌이며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55세 베테랑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가 3타를 줄이며 1타 차로 바짝 따라붙었다.

이때부터 박인비의 신들린 듯한 '버디 행진'이 시작됐다.

12번 홀(파4) 그린 밖에서 시도한 버

디 퍼트가 들어가며 데이비스를 2타 차로 밀어냈다.

하지만 이번엔 머리나 알렉스(미국)가 15번 홀(파5) 이글을 잡아내며 또 1타 차로 추격했다.

그러나 박인비는 13번 홀(파4)에서 약 3m 정도 만만치 않은 거리에서 한타를 또 줄였고, 14번 홀(파3)에서도 버디를 잡아 2위 선수들과 격차를 3타로 벌렸다.

15번 홀(파5)에서는 두 번째 샷이 병커로 향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절묘한 버거샷으로 공을 홀 1.5m에 붙이면서 4홀 연속 버디를 기록했다.

박인비가 3개 홀을 남기고 4타 차 선두가 되면서 사실상 우승의 향방은 결정된 것과 다름이 없게 됐다.

데이비스와 에리아 쭈타누간(태국), 알렉스 등 세 명이 박인비에 5타 뒤진 공동 2위, 전인지(24)는 13언더파 275타로 공동 5위에 올랐다.

신인으로 앞서 출전한 3개 대회에서 모두 10위 이내 성적을 낸 고진영(23)은 이날 1타를 잃고 5언더파 283타, 공동 46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 대회를 후원한 벅크 오브 호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한인 은행이다.

이 대회는 이번 시즌 끝난 5개 대회 가운데 한인 기업이 후원한 첫 대회로 열렸다. /연합뉴스

정현, 세계 랭킹 23위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2·한국체대)이 세계 랭킹 23위에 오르며 아시아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정현은 19일 발표된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 랭킹에서 2주 전 26위보다 3계단 오른 23위를 차지했다.

이날 끝난 ATP 투어 BNP 파리바 오픈에서 8강까지 진출한 정현은 랭킹 포인트 1,727점을 기록했다.

2주 전 순위에서 25위로 정현보다 한계단 위였던 니시코리 게이(일본)는 33위로 밀려났다.

이로써 정현은 이번 주 순위에서 아시아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가 됐다.

2000년대 이후 남자테니스 '아시아 톱 랭커'의 자리는 이형택, 파론 시차판(태국), 루엔순(대만), 니시코리 등으로 이어졌다.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여전히 1위를 지켰고, BNP 파리바오픈 결승에서 페더러를 물리친 후안 마르티넬 포트로(아르헨티나)가 8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

여자부 순위에서는 BNP 파리바오픈 우승을 차지한 나옴이 오사카(일본)가 44위에서 22위로 경주 뛰어 아시아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시모나 할레프(루마니아), 캐럴라인 보즈니아키(덴마크)가 나란히 1, 2위를 유지했다. /연합뉴스